

남은 시간 단 하루... “남은 표를 모아라”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속 판세예측 난망
투표변수 떠오른 부동층에 각 진영 세력 집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4일) 자정으로 공식 마감된다. 각 후보들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토대로 자체 판세 분석을 통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45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후보가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에서 2위를 차지한 미래통합당 장성철(제주시갑)·부상일(제주시을)·강경필(서귀포시)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선거 무관심 등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했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판세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총선 당일 유권자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전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거대 양당의 충성도 높은 고정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막판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부동표 흡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캠프는 송 후보가 갖고 있는 도정·국정경험과 실력이 갈수록 유권자들에게 믿음 주고 있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마타도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 남은 기간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측은 장 후

보의 상승세는 단순 지지세력 결집의 결과가 아니라 인물경쟁력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면서 중도성향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자체분석하고 있으며, 상대보다 현장과 정책을 잘 안다는 장점과 진솔한 모습을 부각해 막판 표심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캠프는 제주에서도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는 제2의 노회찬, 제2의 심상정을 키워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고,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4선의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 부동

층 흡수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시을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캠프는 선거기간 내내 상대 후보측에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비방을 일삼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더불어 검찰·정치개혁 등 모든 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국민의견이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제주시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캠프는 부 후보의 진정성과 능력은 인정받고 있는 반면 타 후보의 도덕성과 무능을 심판하려는 도민의 민심이 움직이고 있어 차이가 많이 좁혀져 선거판은 이미 뒤집어졌고 조만간 끝판 크로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부 후보가 취약하고 판단

하고 있는 아라동·이도2동지역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캠프는 지역·세대·직업별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어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기간동안 1차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공약을 통해서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서귀포시 지역에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시름이 극에 달해 있다며 제2공항 조기착공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 무소속 후보와 군소 정당 후보들도 자신들의 공약을 알리면서 막판 부동층 흡수에 주력하고 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정부, 코로나19 생활방역 논의 ‘시동’ 정 총리 “이번주 생활방역체제로 전환 여부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해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할 지 여부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선다.

정부가 생활방역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함에 따라 제주도도 코로나19 장기 국면에 돌입할 것에 대비해 생활방역 방안 구체적 지침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은 어느 정도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선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전환시기와 방법에 대해 신중을 기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위험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생

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이 중요하다”며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육·산업·노동·문화·종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논의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 하지만 자칫 긴장을 늦추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처럼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있다”며 “(생활방역이 이뤄지더라도) 발열 등 작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이동을 자제하는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소중한 한표를...” 1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 그린자전거교실 연합회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4·15총선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무증상 자가격리 선거인만 투표... 시간·동선 분리

투표권을 가진 코로나19 관련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선거당일(15일) 투표소와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다른 선거인과 시간·동선을 분리해 투표를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의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 완화에 따라 투표관리 방침을 13일 내놓았다.

도선관위는 투표마감 시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과 다른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한다. 또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 오은지기자

제주도의회, SNS ‘의회 잇수다’ 개설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익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와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지난 2016년 이후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빵 등 4개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홍보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네티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제 선정 및 홍보·소통을 넓혀 나가기로 하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첫 번째 순서로 ‘의회 잇수다(있다)’ 코너를 신설하고, ‘제주4·3’을 주제로 고대순 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4·3평화재단 관계자, 신성여중 사회탐구등아

리 SOSI-G(소시지) 소속 학생들이 함께한 프로그램 제작을 마쳤다.

이 코너는 제주어를 활용해 제주 4·3 바로 알기를 비롯 시낭송(김경훈 시인), 제주4·3 관련 노래(최상돈 가수의 애기동백꽃) 배우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라질 위기 언어로 선정된 제주어를 보존하고 도민들과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SNS)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도의회는 올 연말까지 7회에 걸쳐 다양한 의제로 ‘의회 잇수다’를 진행, 도민들과 양방향 소통과 눈높이를 맞춰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